



3면

"개헌 국회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

# 전주매일

4면

전북형 산업도시 구축 성과 가시화



2026년 6월 8일 월요일 (음 4월 23일) 제398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 민선9기 전북도정 방향 설계

이원택 지사 당선인  
이번주 인수위 가동  
전북바이오진흥원에  
인수위 사무실 마련  
도민 주권 정부 구현 등  
세 가지 원칙 제시

조직과 기능, 예산 현황 파악, 정책 기조 설정 등을 위한 준비 등을 맡아 진행하게 된다.  
인수위원회는 실질적인 전북도의 모든 현안을 파악해 향후 도지사 당선인이 임기 동안 펼칠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아 하게 된다.  
법령상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무원 파견과 예산 지원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인수위 사무실 위치뿐이다. 위원장과 위원 구성, 분과 체계, 운영 방향 등은 당선인 측이 결정할 사항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전북도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당선인 측의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는 즉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 당선인 측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았다.  
이 당선인은 지난 4일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북도와 인수위 구성을 위한 첫 대화를 시작했다"며 "운영 규모와 방향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수위의 첫 과제로 집권 김영도정의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와 계승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은 정파와 관계없이 이어가야 한다"며 "도민 주권 도정"을 실현하기 위

한 시스템과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9기 도정 운영 방향으로는 △전입 도정 주요 사업의 안정적 계승 △전문가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도민 주권 정부' 구현 △실질 투자 중심의 경제 정책 재편 등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투자협약(MOU) 중심의 성과 홍보에서 벗어나 실제 기업 투자와 정착으로 이어지는 경제 정책을 강조하며 "기존 산업정책과 투자유치 전략을 원점에서 평가하고 실효성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정치권 통합에도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당선인은 "선거는 끝났고 이제는 도민 통합의 시간"이라며 "갑갑영 후보와도 만나 선거 과정의 오해와 갈등을 풀고, 고소·고발 문제 역시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의 임기 시작 이후에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장 20일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활동 종료 후에는 백서를 발간해 운영 결과와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하게 된다.  
민선 9기 전북도정의 청사진을 마련할 인수위원회가 어떤 인물들로 채워지고 어떤 정책 기조를 제시하게 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0만호 기자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의 민선 9기 도정 밑그림을 그릴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이번주에 본격 가동된다.  
전북도와 이원택 당선인 측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위치한 전북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도정 인수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인수위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장소는 확정된 상태이며, 당선인 집무실과 행정 지원 공간 조성 작업이 우선 진행되고 있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다.  
오는 7월 1일 취임하게 되는 도지사 당선인의 임기 개시 전까지 전북도의

"절 받으세요"



제71회 현충일인 지난 6일, 전주시 군경묘지를 찾는 추모객들이 절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시스 제공)

## 국회 첫 등원 박지원, '지방 주도 성장' 선언

(민주·군산·김제·부안을)

"새만금 애향단지 전략 방지 위해 초당적 협력해야"



재보궐 선거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같은당 동료 의원들과 함께 등원 인사 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군산·김제·부안)이 첫 국회 등원 인사 연설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새만금 국책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자신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원 연설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새만금 국책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자신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원 연설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새만금 국책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자신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원 연설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새만금 국책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건투표를 1위(40% 이상)를 기록한 점을 강조하며, "이는 민주주의 연설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새만금 국책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자신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원 연설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새만금 국책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자신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원 연설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새만금 국책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를 열망하는 지역민들의 염원에 정책과 입법, 예산으로 확실히 부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역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거침없는 쓴소리와 함께 초당적 협력을 청했다. 박 의원은 새만금을 막대한 예산이 들지만 유지가 힘든 애향단지를 뜻하는 '흰 코끼리'에 비유하며, "1991년 착공 이후 35년 동안 수많은 지역민의 희생과 기다림으로 버텨온 국가 사업"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새만금이 더 이상 '흰 코끼리'가 되지 않도록 정부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과 관련 상임위 차원의 통합적 대응이 절실하다"며 여야 선배·동료 의원들의 전폭적인 연대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최선의 목숨을 중앙 정치에 생생하게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앞으로 새만금 예산 확보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입법 활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돌고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만호 기자

## 코스트코 익산점 건축허가 최종 승인

사전 검증 절차 마쳐... 시공사 선정 거쳐 착공 예정

호남권 최초로 들어서는 글로벌 유통업체 '코스트코 익산점' 건립 사업이 착공을 위한 핵심적 관문인 '건축허가'를 최종 통과했다.  
그동안 교통영향평가와 건축 심의 등 여러 단계의 행정 절차가 이어지며 가시적인 변화를 기다려온 시민들에게 이번 건축허가 승인은 사업이 무산이나 지연 없이 확고한 궤도에 올라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결정적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익산시는 (주)코스트코코리아가 신청한 코스트코 익산점 건립 사업에 대해 그동안의 교통영향평가 보완 사항과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4일자로 건축허가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허가 완료는 그동안 서류 상으로 진행됐던 모든 복잡한 사전 검증 절차가 사실상 완결됐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익산점 건립은 실제 눈앞에 건물이 올라가는 물리적 착공을 위한 완벽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시는 이번 건축허가를 기점으로 대규모점포 등록, 착공 신고 등 서류 제출 위주의 남은 후속 행정 절차들을 강력한 속도전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코스트코코리아는 시공사 선정을

거쳐 코스트코 익산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익산점은 호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최초의 매장으로 조성되는 만큼, 그동안 인근 타 시·도로 원정 소풍을 떠나야 했던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전북은 물론 호남권 등 거대한 소비 수요를 익산으로 유입시키는 효과와 함께 대규모 일자리 창출, 지역 물류·유통 산업 지형 재편 등 연쇄적인 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착공 이후 공사 과정에서 교통, 안전, 환경 등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시민들이 유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2026 GUNSAN BREWS & BLUES FESTIVAL**  
보리에서 맥주까지, 대한민국 수제맥주 일번지 - 군산

2026 군산  
수제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

**FRI 6.12. ~ SUN 6.14.**  
**12:00 ~ 22:00**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일원  
Gunsan Modern History Museum Parking Lot

